

Drag Queen 服飾에 關한 研究

簡 鎬 涉

同德女子大學校 衣裳디자인學科 專任講師

A Study on Drag Queen's Costume

Hosup Kan

Full 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nsidering about drag queen's costume in the point of view of anthropology and psychoanalysis.

The contents are the meaning of drag queen by theoretical research and the characteristics of drag queen's costume.

The results of characteristics of drag queen's costume are summerized as following.

1. Sexual originality is related with homosexuality. Costume express character of gay not as a transsexual or cross-dresser.
2. Imitation is related with identification of drag queen and famous star like actress, pop singer and historical heroine.
3. Amusement is related with drag queen's life style. There are two kinds of character in amusement. One is humour. Another is an exaggeration.
4. Commercialism is related with mass-media culture. Drag queen's costume have an influence with movie, advertisement and modern fashion.

I. 서론

나쁜 예술(bad art)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걸작(Master piece)이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임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자주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통념이나 고정관념들 안에 갇혀 버린 우리의 미적 기준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허무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는 경구일 것이다. 인간은 본래 두 가지의 성종 하나만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성의 구분이 남·녀 간의 생물학적 차이(sex-male : female)에 의한 것과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남·녀간의 사회적 의미(gender-masculine : feminine)에 의한 것으로 이루어지건 간에 이 두

구분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본 연구는 출생과 함께 부여받은 성역할 외에 다른 이성의 복장을 착용, 그 중에서도 여성이 남성의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아닌 남성이 여성의 복장을 착용하는 Drag Queen들의 착장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Age of less 즉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21c에 있어서 인종, 국가, 나이 그리고 성이라는 개념이 와해되는 시점에 있어서 그들의 성적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성역할, 문화적인 영향력, 이상적인 미개념의 파괴 등을 지금까지 여러 논문에서 다루었던 동성애자(homo-sexual)들의 복식 형태나 이성복장 착용(cross-dressing)등의 거시적(macro-scopic) 범위를 좁혀 좀더 미시적(micro-

scopic) 범위에서 Drag Queen들의 복식 행위를 구체적 인(specific) 사례를 들어 연구하였다. 본론에서는 우선 먼저 과연 누구를 Drag Queen들이라고 지칭하고, 정의되는지를 문화적 연구로서 정신분석학, 인류학, 사회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동성애에서부터 이성의 의복착용 현상 등을 이론적 배경으로 다루었으며 실증 자료 및 다양한 매체를 대중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 하여 Drag Queen의 복식에 나타난 특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복식의 이상적인 아름다움 외에 그 아름다움이 존재하기 위한 또 다른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그에 따른 연구가 연계된 다른 학문의 연구에 좀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정보를 다양한 시각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학문의 다양성 및 예술적 시각의 극대화에도 기여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폐쇄적인 문화성에 신선한 자극이 되리라 생각된다.

II. 이론적 배경

1. 동성애

1) 동성애의 비교문화적 관점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구분하는데 있어, 성적 환상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누구와 성적 접촉을 하는가에 따라, 대상이 이성일 경우는 이성애(heterosexual), 동성일 경우는 동성애(homosexual), 동성과 이성 모두일 경우 양성애(bisexual) 그리고 아무런 대상이 없으면 무성애(asexual)라고 표현한다. 단지 이성애만을 정상의 기준으로 여긴다면 동성애와 양성애 그리고 무성애는 일탈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성적 활동을 구분하는 용어는 한 사회의 규범을 나타내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용어이다.¹⁾ 동성들간의 성적 행위는 그 기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했다.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적 상황에 따라 그러한 행위들이 심한 범죄적 행위로 간주되기도 했으며 반대로 당연하고 자연스런 행위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B·C 650년에서부터 약 500년간 정신적인 수양과 더불어 남성

들의 육체적인 미를 강조하여 자손을 번창하는 의무를 지키는 한 남성들의 동성애 행위는 용인되었다. 그리스에서 여성들은 인생의 반려자이자 동반자가 아니라, 단지 생식을 위한 열등한 존재로만 인식했다. 그들의 동성애 관계는 에로스(Eros)적인 면 외에도 철학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했다.²⁾ 남성들은 짧은 기간이지만 어린 시절 동성애 관계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데, 성년이 되면 수동적인 역할을 버리고 결혼하여 아이를 갖는다. 생의 후반에 수준 높은 남성들은 미소년의 연인을 두었다.³⁾

그리스 문화권과는 반대로 유태교 문화권에서는 동성애는 하느님에 대한 죄악이요 처벌의 대상이었다. 구약성서 레위기에서 이르기를 “여자와 한자리에 들듯이 남자와 한 자리에 들 남자가 있으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하였으므로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한다. 그들은 “피를 흘리고 죽어도 마땅하다.” 고 하였다. 이는 나라가 없이 떠도는 유태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자녀 생산의 의무를 무시한 행위는 그들 종족의 존립 자체를 위협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로마제국 초기에도 동성애가 성행했지만 그리스 시대처럼 동성애 자체를 이상적인 관계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이후의 동로마제국에서는 유태인들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죄악시하여 13세기 후반 아퀴나스(Aquinas 1225 - 1274)가 그들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아퀴나스는 남성들간의 동성애 행위를 식인행위(cannibalism)에 까지 비교할 정도로 혹평을 하였다.⁴⁾ 반면 대부분의 기독교 문화권과는 달



<그림 1> 동성애가 묘사된 고대 Greece의 도자기, 성문화와 심리. 학지사 P 302

리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여러 문화권에서는 제도적으로 동성애 생활을 발달시켰다. 예를 들면, 멜라네시아 지역의 일부 종족은 남아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성인 남성과 실제로 또는 일시적으로 결혼을 한다. 곧 그들은 사춘기에 들어서면 남·녀가 분리되어 10대 남성을 동년배나 연장자와 동성애 관계를 가진다. 또 호주의 남부띠(Nambuti) 종족도 모든 청소년들이 할례를 받은 연장자 남성의 동성애적 부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성인기에 달하면 자신의 남편 역할을 하는 연장자의 딸과 결혼하였다.⁵⁾ 이는 부족의 특성상 소집단에서 서로 밀착되는 관계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간의 성적 접촉을 금하여 조기 임신·유산과 같은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방편일 수도 있으며, 어린 소년을 데려와 자신의 데릴사위화 하는 풍습일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문화권에서의 동성애에 관한 기록은 매우 드문 편이다. 이는 우리 문화의 정서상 유교 문화권이라는 엄격한 남·녀유별(男女有別) 사상에 기초하여 이를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조 이전의 기록들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통해서 동성애 행위가 존재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조선조에서도 실제 동성애 관계를 언급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⁶⁾ 물론 그러한 기록들이 거의 왕족이나 귀족같은 상류 사회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지만 서민층에도 동성애가 유행했음을 짐작 할 만한 풍습이 전해진다. 예를 들면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에서 거행된 '바구리'라는 성년식 풍습은 남자들이 선임자들에게 동성애 행위를 당한다는 뜻이다.⁷⁾ 따라서 전술하였듯이 동성애를 보는 관념은 그 사회가 갖는 제도적인 관습, 종교, 사회적인 용인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2) 동성애의 동기

(1) 정신분석학적 요인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던 1900년 프로이드는 꿈의 해석(Die Traumdeutung)을 출간한다. 출간 당시 그다지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던 이론이 제1차 세계대전을 이후로 '정신적 외상'(traumas), '억압'(repression), '무의식'(the unconscious)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트

로이드의 중요 관심사 가운데 한 가지는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섹슈얼리티를 인간의 모든 행동의 배후에 있는 힘으로 간주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모두 일련의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먼저 '구강기'(oral stage)가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우리의 욕망은 입에 집중되며, 모유를 먹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빨고, 맛보고, 먹음으로써 그러한 욕망을 만족시킨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항문기'(anal stage)로 이 단계에서는 배변과 항문이 에로틱한 관심의 중심이 된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가 '남근기'(phallic stage)라는 단계로 이 시기에는 관심의 초점이 생식기로 전이되어 남자아이들은 페니스의 감각에, 여자아이들은 클리토리스의 감각에 관심을 지니게 된다.⁸⁾ 이처럼 어린이들이 가지는 본능적 성욕은 어떠한 형태의 만족에도 적응할 수 있다. 그들은 현재 이성애나 동성애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먹는 것에서 만족을 하듯이 신체 기관의 여러 부위에서 쾌락을 얻을 수 있도록 태어난다. 즉 프로이드는 모든 인간이 적극성이나 남성다움과 수동성이나 여성다움에 대한 성향을 함께 유전적으로 물려받지만 정상적으로 아동기 때까지 이러한 소질들은 분명하게 형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향이 나중에는 이성애적인 경향으로 성숙된다고 프로이드는 주장한다.¹⁰⁾ 즉 그의 이론에 의하면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학습으로 인한 발달장애인 것이다. 프로이드 이후 1962년 비버(Bieber) 등은 정신과적 치료를 원하는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결과 동성애의 원인이 아동기 때 부모와의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비롯 된다고 하였다. 예를들면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약하고 어머니가 강하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말해왔는데, 남성 동성애자 106명중 73%가 어머니들로부터 유혹적인 행동을 받아 전통적인 남성의 행동을 발달시키는데 방해가 되었다고 했다. 또한 106명 모두가 아버지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전형적으로 아버지들은 무관심하며 적대적이었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관계가 정신분석학적으로 아이를 동성애자로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¹¹⁾¹²⁾

(2) 생물학적인 요인

생물학적 요인의 첫 번째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동성애의 지향을 결정짓는가를 밝히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일란성 쌍생아의 행동을 비교하는 연구였다. 이러한 연구는 1952년 일란성 쌍생아 37쌍의 동성애 일치율이 100%라고 보고한 칼만(Kallmann)의 주장이 최초이다. 그러나 칼만의 보고서는 교도소 및 정신병동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으며, 보다 최근의 쌍생아 연구에서는 일란성 쌍생아들의 동성애 일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고서들도 있다.¹³⁾ 두 번째로는 동성애가 호르몬의 영향 때문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동성애자들이 표현하는 감정이나 행동들은 변화에 대한 저항이 매우 강한 편인데, 그 이유를 호르몬의 불균형이라고 가정한 접근 방법이다. 사실상 남성 동성애자들의 소변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이 이성애 남성들보다 낮게 그리고 여성동성애자들은 이성애 여성들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¹⁴⁾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그들 중에서도 남성의 역할(남성동성애자 - bugger, 여성동성애자 - dyke)을 말는지 여성의 역할(남성동성애자-faggot, 여성동성애자 - femme)을 말는지에 대한 정확한 구별이 없고 무려 30년 전의 사회적 시각에서 바라본 생리적 실험이므로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따른다.

세 번째 접근 방법은 뇌에서의 차이를 규명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매스컴에 알려진 것이 1991년 성행동과 관련된 시상하부의 크기가 이성애자와 다르다고 주장한 것이다.¹⁵⁾ 이는 피험집단 선정의 투명성 및 변인 설정에 따라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2 이성의 의복 착용 현상

1) 역사적 고찰

착장 행위가 시작되면서부터 의복이 남녀를 구분 짓는 하나의 큰 특성으로 자리 잡았다. 그것은 서론에서 앞서 전술한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인 성(gender)이 불일치하더라도 사회적, 관습적 규범에 이탈하는 이성의 의복 착용 현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행위는 정상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성의 의복 착용 현상을 cross-dressing 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구약성서 신명기 22장 5절을 보면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말라. 이런 짓을 모두 하나님께서 역겨워 하신다.'고 적혀 있다.¹⁶⁾ 이처럼 성경에서의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도 이성의 의복 착용 행위가 보이고 있으며 중세나 르네상스 시대의 연극 배역에 있어서도 남성이 여성 역할을 맡음으로써 의도적인 이성의 의복 착용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는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극이나 일본의 가부키에서도 남자 배우들이 여장을 하고 여성 역할을 수행하였다. 허쉬펠트는 남성 16명과 여성 1명의 사례 연구에 관한 저서를 1910년에 발표하면서 이성의 복장을 활용하는 현상을 트랜스베스티즘(trans-vestism)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그의 연구 대상은 대부분 이성애자였으며, 또 이성의 복장을 활용하는 현상이 아동기 초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사춘기에는 증가하였고, 그 뒤로는 거의 불변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엘리스는 허쉬펠트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1913년의 사례 보고서에서 이를 이오니즘(eonism)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이오니즘의 명칭은 20세기 이전의 문헌에서 여성의 옷을 입기로 유명한 자들 중에서 루이 15세의 비밀척사였던 이온 부몽(chareles-Genevieve d' Eon de Beaumont ; 1728-1810)에서 얻어냈다.¹⁷⁾¹⁸⁾ 현대에 와서 1960년대에 이 "부몽"의 이름을 따 "부몽회"라는 이성복식을 착용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는 동성애자를 배제한 이성애자들만의 모임이었다.

2) 이성의 의복 착용 동기

이성의 의복착용 동기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우선 여성이 남성의 복식을 원하는 데 따른 동기와 남성이 여성의 복식을 원하는 동기로 나눌 때 또 이를 이성애적과 동성애적인 관계로 나눌 때 이는 커다란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1) 여성의 남성복식 착용 동기

첫 번째로 여성이 남성의 복식을 원하는 동기에서

이성애자의 남성복식 착용의 동기는 바로 페미니즘과 큰 연관이 있다. 20세기 이전의 여성들은 분명 지금이 여성들이 바지를 입고 다니는 동기와 다르다.¹⁹⁾ 그들의 동기는 성적 충동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갈망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알려졌다. 권익 운동의 일환으로 여성들이 남성의 복장을 착용하는 행위를 소위 '정치적 이성 복장 착용(political transvertism)' 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흔적은 승마 선수처럼 운동 선수들의 제복에서 나타난다. 이는 남성들과 동등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여성들의 욕구에서 의복이 남성화된 경향을 보인 것이다.²⁰⁾ 지금 보는 여성들이 평상복으로 입고 있는 정장류(suit)의 모든 옷들이 남성복에서 파생된 것이 그 실례라 하겠다.

반면에 여성 동성애자의 남성복 착용의 의미는 자신이 남성임을, 남성다움을 나타내기 위한 과시의 도구 및 정신학적인 착각의 도구로서 의복을 이용한다. 과거 20세기 이전 미국 군대에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남장을 한 여성 동성애자가 군대에 가 복무를 했고 그들이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직업을 택할 경우에도 경찰·운전자 등 남·여 크게 디자인이 다르지 않은 제복을 입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²¹⁾ 이는 여성 동성애자들은 남성 동성애자들과 다르게 보통의 여성과 다른 눈에 띄 만한 신체적인 특징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그들의 성적 지향성에 있어서 남성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복식 착용 행위가 여성이 남성 복식을 입는데 있어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큰 저항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 남성의 여성복식 착용 동기

이성의 의복착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성의 여성복 착용 중 이들 남성의 거의 대부분은 결혼을 한 이성애자로서, 보통 때의 행동이나 옷을 입는 모습은 완전히 남성 그대로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동성애적 행위를 하거나 실제로 동성애자인 사람도 극히 일부가 있다고 한다. 이를 비교해 본다면 여성의 의복을 입은 이성애자는 복장도착증의 전형적인 예이고 여성의 의복을 입은 동성애자는 성전환증의 전형적인

예인 것이다.

즉 이성의 옷을 입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옷을 입는 동기는 전혀 상이하다. 복장 도착증의 환자가 여성의 옷을 입는 이유는 성적인 자극을 받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고, 성전환증의 환자가 여성의 옷을 입는 이는 자신이 느끼는 심리적 성에 여성의 옷차림이 자연스럽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²²⁾ 이성애자의 이성의 복식착용 행위는 paraphilia에 속하는 성도착증의 하나로서 무생물의 사물-예를 들면 여성의 속옷이나 장갑, 고무, 가죽, 동물의 모피로 된 물건에 의해 자극을 받는 페티시즘(fetishism)의 일종이다.²³⁾ 행동적으로 이성의 옷을 입는 행위나 심리적으로 이성의 옷을 입고자 하는 감정 상태는 당사자가 성적 흥분과 오르가즘을 얻거나 관심을 받는 결과와 관계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성전환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동성애와도 필수적인 관계는 아니다.

Doctor, R & prince.V (1997) Transvertism : A survey of 1032 cross-dresser, A SB. 26. p 589-605에서 발

<표 1> 이성복장착용자의 특성

	1972년 (504명)	1992년 (1032명)	비 고
이성애자의 비율	89%	87%	기타 동성, 양성, 무성애
동성과의 성교 비율	28%	29%	
아내가 결혼 전 CD를 알았다	80%	83%	
스스로를 여성으로 느낀다	2%	17%	
상담전문가를 찾아간다	24%	45%	
상담을 원한다	47%	67%	
공공연한 CD 행위의 비율 변화			
자주 공개적으로	8%	14%	
가끔 공개적으로	23%	48%	
거의 하지 않는다	69%	38%	
남성이기를 바란다	29%	11%	
여성이기를 바란다	56%	28%	
남녀 반반이기를 바란다	12%	60%	

체한 표를 보면 전술한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²⁴⁾

이처럼 이성의 복식착용의 동기는 남·여에 있어서 사회적, 문자적인 용인과 제도적 관습에 의해 남성이 여성복식을 착용하는데 있어 큰 저항에 부딪혔으며 이성애자들의 이성복식착용 행위가 동성애자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안에서는 이성애 여성의 남성복식착용 동기는 Feminism이 이성애 남성의 여성복식착용 동기는 Fetishism에 기인했다고 하겠다.

이를 결론적으로 정의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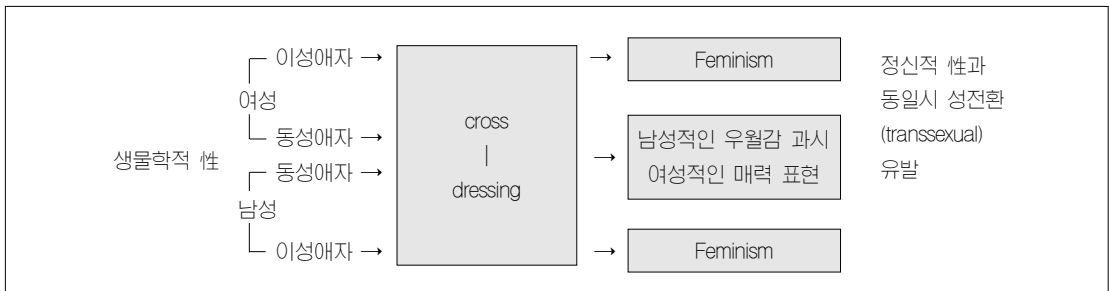
3. Drag Queen의 정의 및 생활양식

Drag Queen 이란 특별한 동성애자들의 행사에서 여성의 복장을 한 남성 동성애자를 뜻한다. 또는 일부 게이바에 있는 무대에서 여성의 흉내를 내며 손님들의 흥을 돋구는 남성 동성애자 연예인들을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된다.²⁵⁾ 단지 여성으로 분장하여 관객을 즐겁게 하는 예술인들은 동성애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엄밀하게 그러한 연예인들은 드래그 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남성 동성애자만으로 드래그 퀸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Drag ; 무대에서 활동하는 동성애자 연예인이 이성의 복장을 했을 경우 그들이 입은 이성의 복장을 지칭하는 말. Queen ; 남성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을 칭하는 일종의 속어) 또한 드래그 퀸과 앞서 전술한 이성의 복장을 활용하여 성적 흥분을 느끼는 자들과도 엄격히 구분이 된다. 이는 이성의 복식을 착용하는 남성들 중에 이성애자는 물품음란증인 Fetishism의 성격이 강하고 동성애자는 성전환증의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여기서 이성애자는 우선 동성애자인 드래그 퀸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제외시키더라도, 이성복식착용 행위를 하는 남성 동성애자 즉, transsexual과의 구분을 명확히 지어야 할 것이다.

성전환자(transsexual)들은 수술 전 해부학적으로는 정상의 남성이라고 스스로 지각하고 있으며 또 그 사실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여성적 성 역할이나 행동만을 표현해 왔기 때문에 자기의 해부학적 성을 부적절하고 불편하게 느껴 여성이 되기를 원한다. 일반적으로 성전환을 원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도착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인 견책에 두려움을 느끼고 성전환 수술을 원하기도 한다. 그들의 일부는 동성애 공포증을 지닌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동성애의 경험이 있었거나 또는 동성애에 대한 환상을 가졌던 성전환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동성애가 아니라고 여긴다. 즉 여성으로 성전환을 원하는 남성은 남자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남성의 사랑을 받고 싶어한다.²⁶⁾ 물론 일부의 드래그 퀸들은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심리적으로 여성이고 싶어하고 여성으로서 사랑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이들은 transsexual과는 달리 오직 특별한 행사나 무대에서만 여장을 하고 흥을 돋구는 엔터테이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걸모습으로 볼 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주입하거나, 성형수술을 통해 실리콘을 넣어 유방을 만든 경우는 있어도, 고환의 제거, 남근의 절단, 인조 여성 생식기를 만드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과의 구별이 힘든 성전환자와는 다르게 여장을 해도 과장되고, 코믹하게 연출한다. 일반적으로 행사나

<표 2>



<표 3>

Bean Queen	라틴 계통의 남성 동성애자에게만 불리는 남성 동성애자. 라틴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의 하나가 콩(bean)이기 때문이다.
Dingy Queen	흑인에게만 성적으로 불리는 남성 동성애자. 지칭하는 대상을 멸시하는 의미가 들어 있다.
Frog Queen	프랑스 혈통의 남성에게만 불리는 남성 동성애자
Rice Queen	아시아 계통의 남성에게만 불리는 남성 동성애자
Snow Queen	백인 남성에게만 불리는 남성 동성애자

무대에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평상 생활에 있어서는 평범한 남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드래그 퀸 이외에도 남성 동성애자의 성향에 따라 여러 종류의 Queen이 존재한다.²⁷⁾

III. Drag Queen의 복식에 나타난 특성

1. 성적 정체성

드래그 퀸들의 복식의 특성은 우선 첫째로 자신을 남성으로 인정한 체 여장을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드래그

퀸임을 인식하고 있다. 즉 남성인 동시에 여성의 의상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장신구는 물론 말씨와 행동까지 취함으로써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인 성의 정체성이 불분명함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성전환자(transsexual)들과는 다르게 여자같이 곱고 부드러운 피부나 탐스러운 가슴, 연약한 허리선, 그리고 잘 빠진 다리에는 큰 흥미가 없다.²⁸⁾ 완벽하게 여자로 보이기 이전에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더 큰 관심을 보여 평소 사회적, 심리적으로 억압되고 멸시 당했던 기억에서 벗어나, drag를 한 순간만큼은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자, 자정 12시까지만 허용되는 아름다움을 갖는 신데렐라와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여성적(Feminism)이게 보이는 의상보다는 자신의 남성적(Masculine)인 매력과 잘 어울리는 여장을 택해서 개성을 표출한다. 뒤에서 서술하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잘 택하는 복식 특성이 자신과 동일시되는 유명 스타들의 의상을 모방하는 것이다. 성격 정체성을 드러내는 스타일을 순서대로 본다면 짙은 화장 밑에 그대로 드러낸 남성적인 목젓과 중성적인 목소리, 그리고 근육질의 몸매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 노출이 심한 의상 그리고 다리 종아리의 근육과 힘줄이 그대로 보이는 높은 하이힐을 들 수 있다.

턱수염을 그대로 한 채, 가발과 브라·스커트만을 착용하기도 하며, 남성 성기가 있음을 증명하듯 하의



<그림 2> 턱수염을 깎지 않은 채 가발과 여장만을 한 모습
Next Magazine, 96, Vol 4, p 6



<그림 3> 상반신을 노출한 채 여장을 한 모습
Hysberg. Paris. 98. No19.p 24

는 몸에 밀착된 팬티에, 상반신은 아예 누드로 해 메이크업과 장신구로만 보면 여장을 한 듯 하나, 남성임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어 성적 정체성을 저항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2 모방성

드래그 퀸 복식의 특성 중 두 번째는 모방성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은 여성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돋보여서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일반 대중뿐만이 아니라, 그들 드래그 퀸들 사이에서도 큰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공간 즉 게이바나 클럽 등에서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맛보며 즐기거나, 남을 위해 쇼를 할 때 서로의 경쟁과 시기심에서 누구 못지 않은 노력을 한다. 가장 쉽게 대중적 호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대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대중적 스타들-영화배우, 가수 등-을 모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



<그림 4> 영화배우 Shirley Maclaine. 1964
Fashion In Film. prestel. p 99



<그림 5> Shirley Maclaine의 이미지를 모방한
나이트 드래그 퀸. qx International.
98. No200. p 46



<그림 6> 팝가수 Madonna의 공연 모습
Fetish, Oxford press. p 122



<그림 7> Madonna의 의상과 행동을
모방한 드래그 퀸 qx
International. 98. Vol189. p 13



<그림 8> 컨츄리가수 돌리 파튼을 모방한
드래드 퀸. Lady Bunny. Next
Magazine. 96. Vol 94. p 6



<그림 9> 마리 앙드레외네뜨를 모방한
드래드 퀸 qx International.
98. Vol200, p 30

의 이미지와 맞는 스타를 잘 선정해 drag를 하면 누구든지 쉽게 그 스타를 떠올리며, 바나 클럽에서 공연을 할 때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커다란 웃음과 해학을 주는 것이다. 가장 많이 모방되었던 스타들로 는 마돈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60-70년대 유명했던 흑인 여성 트리오 슈프림스, 컨츄리 송 가수 돌리 파튼 등이 있으며 나이트 드래그 퀸들을 위해서는 옛날 영화 배우의 이미지를 차용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배우로는 셸리 맥클레인, 말리네 디트리히 등이 있다.

이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은 바로 그 이름을 떠올리자마자 떠오르는 개성 강한 이미지들일 것이다. 마돈나 하면 근육질의 강인하면서도 섹시하고 여성 저항의 대표주자로 모이며, 패션에 있어서도 최신 유행을 리드하는 이 시대의 Fashion Leader이기 때문이다.

또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커다란 매부리코에 잔잔하고 로맨틱한 노래를 그리고 코믹한 연기까지 그들의 공연 상대로는 최고의 안성맞춤이며, 그밖에 슈프림스는 흑인 드래그 퀸들의 우상이자 행동의 규범이고 돌리 파튼은 엄청나게 커다란 유방과 높게 세운 금발과 긴 속눈썹 화장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대중적인 스타들 외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여인들도 그들의 모방 대상이다. 즉 Period costume을 통해서 역사적인 향수와 시대적인 연출을 통해 새로운 인물

을 창출해 내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세기적인 요부 클레오 파트라, 사치와 허영의 대명사 마리 앙뜨와네뜨 등이 있다. 이 모든 모방은 곧 동경이자 선망의 대상인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얻어지는 일종의 자기 충족이며, 이러한 순간은 배우들이 극에 몰입해 극중의 인물 즉 드래그 퀸 의상의 모방성은 drag 하는 자신을 원래의 자신이 아닌 새로운 인물로의 창조-creation-라 하겠다. 동일시하는 현상과 크게 다를 바 없다.²⁹⁾

3. 유희성

드래그 퀸 복식의 특성 중 세 번째는 유희성이다. 이는 그들의 생활 범주에 관한 복식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성전환자거나 이성애자들의 이성복식 착용 행위와는 달리 드래그 퀸들은 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거나 흥을 돋구기 위해 혹은 자신이 Night-Life를 즐기고 싶을 때 주로 drag를 한다. 그래서 그들의 복식은 일상 생활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하고 화려한 의상이 많다. 즉 앞서 서술한 모방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성을 표출하는 특정 연예인의 모방으로 그들이 연예 활동에 사용한 의상은 물론 헤어스타일, 장신구 소품 등을 모두 사용하며, 또 유희를 위해 두 가지 의



<그림 10> 카우보이 소녀의 이미지를 표현한 드래그 퀸
qx International. 98. Vol190. p 14



<그림 11> gingham 체크를 입은 코믹한 드래그 퀸
qx International. 98. Vol190. p 17



<그림 12> 태국의 드래그 퀸 쇼인 Alkazar show
깃털이 과장되게 장식된 모습



<그림 13> 런던의 나이트클럽 Heaven 유리
장식으로 만든 모자를 쓴 드래그 퀸

상 코드를 사용한다. 그 중 하나는 유머(Humour)이다. 사람들이 드래그 퀸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들이 여성으로 착각할 만큼 여러거나 예쁘기보다는 남성이 화장을 하고 치마를 입은 코믹한 연예인으로 생각한다. 실제 그들은 공연을 할 때 자신의 분위기와 나이에 큰 차이가 나는 카우보이 소녀라든가 또는 똥보 아줌마들의 역할을 맡아 폭소를 자아내기도 한다. 이 때문에 뒤에서 서술하겠지만, 대중문화에서 많은 코미디 영화에 drag를 한 -여장을 한 -인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예 : Some like it Hot, 마릴린 먼로, 잭 레론, 토니커티스 주연, 1959년작, Tootsie 더스틴 호프만, 제시카 랭 주연, 1982년작, Mrs. Doubtfire, 로빈 윌리엄스, 샐리 필드 주연, 1993년작)

이 유머성을 높이기 위한 의상들의 특징은 화려하고 색시하다기보다는 귀엽고 코믹한 것인데, 주로 사용하는 실루엣은 X자형의 짧은 크리놀린 스커트가 많으며 직물도 반짝거리거나 비치는 소재보다는 소박한 느낌의 깡검체크(Gingham check)나 점무늬(Dot print)가 많고 화장도 볼을 볼그스레하게 칠하거나 립스틱을 우스꽝스럽게 칠하기도 하며 가발은 소녀 느낌의 단발이나 양갈래로 땀은 머리를 사용하며 핑크, 스카이블루, 네온의 형광색 같은 Funky 하면서 발랄한 느낌을 주는 색상을 선호한다.

두 번째 의상코드는 과장(Exaggeration)이다.

이는 일반 쇼무대에서는 여성 무용수 및 연예인들의 의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의상에 대한 모방일 수도 있고, 그들의 활동 무대인 클럽이나 바에서의 Performance용 의상인 것이다. 즉 가장 사람들의 시선을 쉽게 끌 수 있고, 많은 대중들 앞에서 가장 화려하게 보일 수 있는 의상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의상들의 특징은 몸에 딱 맞는 fitted silhouette 이거나, 아니면 극단적 노출을 심하게 하여 앞가슴을 깊게 판다거나, 등을 혹은 다리 부분의 slit을 길게 내서 sexy함을 강조한다. 소재 또한 스팅글이나 비즈가 달린 화려한 직물을 사용하며 몸매를 드러내기 위해 신축성이 있는 spandex 소재 또는 광이 있는 가죽이나 Vinyl 소재를 많이 사용한다.

특히 Dramatic 한 연출을 위해 의상 이외의 다양한 장식구나 소품을 이용하는데 어두운 실내에 조명을 받아서 큰 효과를 내는 (나이트 클럽이나 노래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천장에 매달린 Mirror Ball과 같은 원리) 거울로 만든 모자나 소도구를 이용하거나 마치 브라질의 삼바 축제에 나온 듯한 여러 종류의 커다란 깃털 장식을 선호한다.

4. 상업성

드래그 퀸 복식 특성 중 네 번째가 바로 상업성이다. 위에서 열거한 세 가지 특성이 드래그 퀸 복식의 구체적인 분석이라면 상업성은 드래그 퀸 복식의 문화적 전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드래그 퀸의 복식 문화가 우리의 대중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고, 알게 모르게 접



<그림 14> 영화 Some like it Hot 에서 여장을 한 잭 레몬 MGA사. 1959년작



<그림 15> 영화 Tootsie에서 여장을 한 더스틴 호프만 Columbia사. 1982년작



<그림 16> 영화 Priscilla Queen of Desert의 드래그 퀸 의상 Polygram사. 1994년작

해 왔다는 사실이다. 먼저 가장 큰 문화적 매체로 영상물 그 중에서도 영화를 들 수 있다.³⁰⁾ 영화에서는 드래그 퀸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을 취했다. 하나는 그들의 복식 문화를 차용해서 드래그 퀸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만든 코믹 영화들이다. 대표적으로는 Some like it Hot (1959년, MGA사) 에서 잭 레몬과 토니 커티스의 여장, Tootsie (1982년, 콜럼비아사) 에서 더스틴 호프만의 여장, Mrs. Doubtfire (1993년, 20세기 폭스사) 에서 로빈 윌리엄스의 여장 등일 것이다.

이들 영화에서는 그들의 drag(여장)의 동기가 우리가 선행 연구한 드래그 퀸들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이성애자이며 모두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무명 배우로서 배역을 얻기 위한다든지, 이혼 후 아내에게 양육되는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라든지..) 여장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 모두 남자임이 밝혀지고 극의 대단원은 모두 해피 엔드로 결말을 맺게 되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 드래그 퀸들의 존재를 묵인하고, 그들을 보고 코믹하게 느끼기는 하나, 그것이 실제로 동성애의 행위로 이어지고 심각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코믹 영화는 정상적인 이성애를 기준으로 잠시 여장한 상태를 즐긴 후 다시 이성애적인 정상 생활로 돌아온다는 내용으로 관객들을

안심시킨다. 반면 이런 코믹 영화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드래그 퀸들의 생활을 다루거나 극 중 배역이 드래그 퀸인 영화들도 있다.

영화 Crying game (1992년, 英 Live사)에서는 실제 극중에서 드래그 퀸 가수의 역할을 Miranda Richardson이 맡아 드래그 퀸 복식의 특성 중 유희성 중 과장되지 않은 sexy함을 보여주었다 단 영화 Priscilla Queen of the Desert (1994년, 호주 Polygram사)에서는 실제 드래그 퀸들이 호주 내 순회공연을 다니는 형식의 일종의 다큐멘터리성 코믹 영화로 그들의 삶과 고뇌 그리고 성적 정체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다.

특히 공연시마다 보여주는 의상의 특성은 유희성 중 유머와 과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화 '이태원 밤하늘에도 미국 달은 뜨는가', '마스카라', '개 같은 날의 오후', '찜' 등에서 드래그 퀸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다. 다음으로는 그들의 문화가 이제는 클럽이나 바 같은 유희 문화에서 레스토랑 같은 식문화로까지 확산됐음을 볼 수 있다. Paris, NewYork, London 등지에서는 화려한 조명과 음주, 댄스 같은 클럽 문화 이 외에도 piano bar 라고 하여 우리가 쉽게 가는 cafe나 칵테일바 정도의 조용한 분위기에서 간단한 음료와 함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림 17> Drag Queen 식당의 광고 Next Magazine. 97. Vol 16. p 12



<그림 18> 드래그 퀸 스타 Rupaul VH1 Fashion Award



<그림 19> Rupaul의 이미지를 한 MAC 광고 모델들 Vogue Korea. 2000. 5



<그림 20> 자신의 이름을 딴 토크쇼를 진행하는 Hedda Lettuce Next Magazine. 96. Vol 4. p 20



<그림 21> 유명 드래그 퀸 Lady Bunny의 파티 포스터 qx International. 98. No 189. p 17



<그림 22> 여성 드레스를 입은 남성 모델 베르사체 비주얼 모음집, L'uomo Senza Cravatta, Leonardo Arte. p 148

아예 드래그 퀸 레스토랑을 오픈해 Drag Dining 이라고 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물론 이런 아이템들이 음식의 맛이나 분위기도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더욱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드래그 퀸들의 공연을 보며 식사도 하고 음료나 차도 마시며, 또 그들이 웨이트리스의 역할을 하며 음식을 서빙한다는 점일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드래그 퀸의 문화가 이제는 특정인들의 세계에만 한정된 Night-life로서의 밤문화에서 일

반인들도 즐기게 된 문화적 영역의 확대인 셈이다. 이러한 문화적 확대는 이제 그들도 더 이상 특정 스타의 모방에서 벗어나 드래그 퀸 스스로가 슈퍼스타가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스타가 바로 흑인 드래그 퀸인 Rupaul 로서 이미 패션, 광고계에서 슈퍼 모델 못지 않은 높은 개런티를 받고 활동하고 있다. 그가 부른 디스코 풍의 댄스뮤직인 Super Model 은 90년대 중반 린다 에반젤리스와 나오미 캠벨, 클라우디아 슈퍼 등의 슈퍼 모델



<그림 23> Gianni Versace의 실크 셔츠를 입은 드래그 퀸 베르사체 비주얼 모음집, South Beach Stories. Leonardo Arte. p 199



<그림 24> 과장된 드래그 퀸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구슬 드레스 Thierry Mugler작. collections a/w. 95-96. p 16



<그림 25> 화려한 드래그 퀸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깃털 드레스 Thierry Mugler작, collections. a/w 95-96. p 26

들의 인기에 힘입어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랭크되었으며, 세계적인 팝스타 Elton John 과 듀엣곡을 취입하기도 했다.

또한 세계적인 화장품 메이커인 MAC에 여성을 대신해 광고에 출연하기도 했으며 현재도 Rupaul의 이미지 - 금발을 한 키 크고 늘씬한 글래머의 흑인 여성 - 를 딴 모델이 MAC 광고를 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AIDS 퇴치기금으로 적립된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셀러를 기록한 흑인 여성 랩 트리오 T.L.C 또한 Rupaul 금발의 섹시한 이미지를 모방했다. 이외에도 Hedda Lettuee 란 드래그 퀸은 매주 케이블TV에서 오프라 윈프리나 데이빗 레터맨처럼 자신의 이름을 딴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으며, Lady Bunny 란 드래그 퀸은 이제 클럽파티의 호스트가 되어 그가 등장하는 광고의 클럽파티는 초만원 사례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그들의 이미지를 차용해 컬렉션에 발표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Gianni Versace와 Thierry Mugler가 있다. 지아니 베르사체는 드래그 퀸 복식의 특성 중성적 정체성에 큰 관심을 모아 여성의 드레스를 잘생긴 남자 모델에 입혀 cross-dressing 적인 요소를 보였고 그의 큰 히트 아이템이었던 화려한 프린트와 색감의 남성용 실크 셔츠는 실제 드래그 퀸을 모델로 하여 광고하였다.

이는 그의 디자인 관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자 그가 잘 사용했던 sexy한 이미지의 fitted한 실루엣, 화려한 스팅글과 비즈, 프린트들은 모두 드래그 퀸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티에리 뮤글러는 드래그 퀸 복식의 특성 중 유희성 그 중에서도 과장(Exaggeration)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의 의상들은 인체에서 왜곡된 과장된 실루엣과 옷감 이외의 재료들 · 깃털, 구슬, 철사, 유리조각 등을 사용하여 드래그 퀸이 쇼를 할 때 그대로 입어도 될 정도의 드레스 등을 Haute Couture 적인 감성으로 표현했다.

또한 의상 이외에도 헤어나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의

<표 4> Drag Queen 복식의 특성

특 성	복식에 반영
성 적 정체성	여성적인 매력의 발산보다는 자신의 개성 표출에 중점을 둬, 노출이 심한 의상, 높은 하이힐 선호
모방성	자신이 선망하는 유명 스타의 스타일 추종. 자신과 동일시함. 마돈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슈퍼림스, 돌리 파튼 등 뚜렷한 개성이 있는 스타를 선호.
유희성	유머(Humour) -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 과장(Exaggeration) - performance 적인 드라마틱한 이미지 섹시한 의상 선호, 스팅글, 비즈등 반짝이고 화려한 소재 선호
상업성	대중적인 인기에 힘입은 상업적인 성공 영화 의상에의 도입, 드래그 퀸 스타 탄생, 음반 · 패션 · 광고 등에 이미지 어필

상의 이미지와 맞게 드래그 퀸적인 환상적이면서도 과장된 스타일을 선호해 높게 틀어 올린 머리라든지, 로코코 시대의 흰색 파우더 메이크업, 눈썹에 붙인 반짝이 비즈 등 performance적인 요소들을 많이 도입했다.

이처럼 드래그 퀸 복식이 대중적인 문화적 전파에 힘입어, Night-life 뿐만 아니라, 영화, 음반, 패션,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위에서 열거한 드래그 퀸 복식의 특성을 간단히 표로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IV. 결론

이제 우리는 남·녀라는 생물학적인 성의 이분법적인 구분 외에 얼마나 많은 성이 존재하는가를 문분을 통해 깨달았다. 그 많은 여러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들의 성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진 이가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흑백논리적인 성의 구분이 얼마나 불합리인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영화 *Some like it Hot* 에서 여장을 한 잭 레몬이 자신이 여자인 줄 알고 청혼한 백만장자에게 가발을 벗어 던지며 ‘난 남자야!’ 라고 외치자 ‘Nobody is perfect.’ 라며 미소짓는 백만장자의 마지막 라스트 씬처럼 우리는 자신의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들의 복식 행위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성의 복식을 착용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일탈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이 남성의 복식의 착용보다 남성의 여성 복식 착용은 역사적으로 금지되어 왔던 사회적이요 전통적인 규범이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이르러 여러 경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불분명해지면서 이러한 규범에도 여러 틈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Drag Queen의 복식 행위인 것이다. 물론 현대 이전에도 이런 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문화적인 영향을 통해 우리의 생활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이다. 드래그 퀸이란 무대에서 활동하는 여성의 복장을 한 남성동성애자란 간단한 정의를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론적 고찰을 통해 동성애와 이성복장 착용 행위(cross-dressing)를 심도 있게 분석해 그들이 성전환자(Transsexual)도 아니고 단순한 복장도착자도 아님을 분명히 밝혀냈다. 이에 따라 드래그 퀸들이란 동성애적인 성향을 지닌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서이 불일치한 남성들로서 여성의 복장을 한 엔터테이너(Entertainer)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의 복식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1. 성적 정체성으로 이들은 성전환자들과 다르게 자신의 생물학적 성(Male)을 인정하고 자신에 맞는 사회적 성(Feminine)을 얻고자 여장을 한다. 그래서 일반여자와 똑같이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예쁘고 아름답게 여장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성(Character)에 맞는 연출에 더욱 중점을 둔다.

2. 모방성으로 만약 그들이 여자로 태어났다면, 따르고 싶은 하나의 표본(Role Model)을 정해 그들의 패션 스타일, 목소리, 행동까지 모방하는데, 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 스타들을 선호한다.

3. 유희성으로 유머 있는 캐릭터를 선정해서 사람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주어 시선을 끄는 스타일과 과장된 실루엣의 의복을 착용해서 직접 시각적으로 시선을 끄는 두 가지 스타일이 공존한다. 이는 드래그 퀸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Night Club 이나 Guy bar 이고 그들의 성향이 엔터테이너의 기질을 갖는 것과 큰 관련이 있다.

4. 상업성으로 대중적 영향력이 큰 매체들에서 드래그 퀸들의 문화가 소개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영화, 음반, 패션, 광고 등에서 큰 성공을 거둬오면서 이제는 드래그 퀸이 스타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스타가 유명 드래그 퀸을 모방해 이미지를 창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은 드래그 퀸 복식 연구의 의의는 앞에서 열거하는 그들의 복식 특성에 대한 단순한 자료 수집과 분석보다는 드래그 퀸 자체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그들의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들이게 된 현대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및 수용성을 들 수 있겠다. 또한 학문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복식 행위에 관한 이 연구가 사회 심리학적인 접근이나 인류학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다른 연계 학문에 세부

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Money, J. Sin, sickness or status? Homosexual gender identity and psychoneuroendocrinology. American Psychologist. 42. 1987. p. 384-399
- 2) Paul Russel, 윤철호 역. The GAY 100 소크라테스 “소년에 대한 열정은 신선한 것이다.”. (주) 사회평론. 1996. p. 33
- 3) Bullough, V & Bullough, B. Are transvestites necessarily heterosexual?. ASB. 26. 1997. p. 1-12
- 4) paul Russel, 앞글, p. 115
- 5) 윤가현. 성문화와 심리. 학지사. 1998. p. 303
- 6) 윤가현. 앞글. p. 304
- 7) 이규태, 한국인의 성과 미신. 기린원. 1985. p. 90
- 8) Hattiett Gilbert. 박미경 역. 그림으로 보는 성의 여성사. 까치글방. 1997. p. 217
- 9) Altman, L. 유범희 역. 성·꿈·정신분석. (주) 민음사. 1995. p. 203
- 10) Edly, N & Weltherell, M. Men in perspective : practice, power and identity. london : Prentice Hall. 1995. p. 40-42
- 11) Bieber, I. Dain, H. Dince, D. et. Homo sexuality: A psychoanalycal study. New York: Basic Books. 1962. p. 110
- 12) Brooks, B. Family influences in father – daughter incest. J of psychiatric Treatment & Evaluation, 4, 1982, p. 117-124
- 13) 윤가현. 앞글. p. 312
- 14) Loraine, J. Adomopoulos, D. kirham, E et. Patterns of hormone excretion in male and female homosexuals. Nature. 234. 1971. p. 552-555
- 15) Levay, S. A difference in hypothalamic structure between heterosexual and homosexual men. science. 253. 1991. p. 1034-1037
- 16) 윤가현. 앞글. p. 455
- 17) Bullough, V & Bullough, B. 앞글. p. 15
- 18) 이정후, 양숙희. 크로스 드레싱(cross-dressing)에 관한 연구. 복식 제 35호. 1997. p. 112
- 19) 박정순, 김훈순. 대중매체와 성의 상징질서 (패미니스트 젠더이론). 나남출판. 1997. p. 26~27
- 20) 윤가현. 앞글. p. 457
- 21) 안중주, 성 포스트모더니즘 이야기, 레즈비언 세계와 역사. 학인사. 1996. p. 126-126
- 22) 최 안드레아. 터부에서 상식으로의 전환. 도서출판 아이. 1997. p. 63
- 23) sigmurd Freud, 정성호 역. 프로이드 性愛論. 문학세계사. 1997. p. 230
- 24) 윤가현. 앞글. p. 462
- 25) 최 안드레아. 앞글. p. 201
- 26) 윤가현. 앞글. p. 332
- 27) 최 안드레아. 앞글. p. 199-206
- 28) W. 라이히. 이창근 역. 성문화와 性교육 그리고 性혁명. 제민각. 1993. p. 210-211
- 29) 이인자. 복식 사회 심리학. 수학사. 1991. p. 232-233
- 30) 박정순, 김훈순. 앞글 (커뮤니케이션과 젠더) p. 57-59